

한 중학생의 외국어 능력 계발 과정에서 나타난 학습 전략 및 기제 분석*

엄 채 윤¹⁾

문 용 린²⁾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4개 국어를 구사하게 된 한 중학생의 사례를 토대로, 능력이 계발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 기여한 전략 및 기제를 발견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참여자는 만 15세 중학생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를 구사하게 된 학습자이다. 연구 자료는 사례연구프로토콜에 맞추어 수집되었으며, 다수의 면담자료와 사례가 소개되었던 신문기사 및 방송자료, 사진이 연구자료로 활용되었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해석적 접근과 근거이론에서 제시된 개방 코딩, 축코딩, 선택적 코딩 방법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연구참여자의 능력 계발 과정에 기여한 중요한 생애 사건이 추출되었다. 자료 분석 결과, 흥미단계-입문단계-수직적 심화단계-수평적 심화단계의 4단계 능력 계발 과정이 발견되었다. 4단계의 능력 계발 과정의 생애 사건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국어 능력 계발에 유의미하게 기여한 5가지 인지·행동 전략을 확인하였다. 서사 및 묘사로 말하는 고유한 의사소통 전략과 그림자 학습은 외국어 학습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인지 전략이며, 반복적 모방과 삶에 몰입하기, 적극적 참여는 연구참여자의 삶을 특징짓는 행동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의 삶에서 능동적 학습과 수동적 학습으로 대변되는 2가지 학습 양식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 개인의 능력 계발 과정을 확인하는데 있어 다양한 생애 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유용하며, 능력이 계발되는 각 시점에서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 능력 계발 과정, 질적 사례 연구, 인지 전략, 행동 전략, 학습 양식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BK 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사업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내용 중 일부는 엄채윤(2007)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1)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E-mail : grace005@snu.ac.kr, 010-2500-9438)

2)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서론

교육심리학은 한 개인이나 집단의 내면·내부적 특성의 ‘현상’ 자체에 주목하는 심리학과는 달리, 한 개인이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해 가는 가치 지향적인 ‘변화’의 과정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육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발휘하는 다양한 능력들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능력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계발될 수 있는지 그 원리와 과정, 기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교육심리학자에게 능력의 발견 및 계발의 정도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오랜 과제였다(문용린 외, 2004; 안태진, 2003; 문용린, 오현석, 한허정, 2006).

최근, 한 개인의 능력이 생애에 걸쳐 발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 개인의 삶을 토대로 능력 계발 과정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예, Gardner, 1993, 1995, 1997; Csikszentmihalyi, 1996, 문용린, 2003; 안태진, 2003; 류숙희, 2004 등). 한 개인이 잠재능력을 계발해가는 과정을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변화와 연결 지어 생각하려는 시도으로써, 단순히 발현된 능력의 양태나 성취 결과물에 집중하는 대신 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겪어온 과정에 눈을 돌린다. 그 발달 과정 자체에 집중하며, 발달 과정에 기여한 전략 및 기제, 발달 과정 내의 역동성에 관심을 둔다.

국내외 연구들은 인간의 능력 계발 양상을 위인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위인이 남긴 뛰어난 업적이나 성취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인의 성취를 가능하게 했던 능력이

생애를 통해 어떻게 계발되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해왔다. Gardner는 아인슈타인, 피카소, 엘리엇 등 7명의 창조적 거장(Gardner, 1993), 마거릿 대처, 마틴 루터 킹 등의 11명의 리더의 삶을 조명하였다(Gardner, 1995). 그들의 삶 속에서 개인의 강점 능력이 생애에서 만나는 영역(domain)과 분야(field)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주었고, 창조성과 리더십의 본질 및 특성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경우, 김구(류숙희, 2004), 전해린(안태진, 2003), 정문술(문용린, 이광형, 안태진, 2004)의 삶을 통해 그들의 지적 능력이 계발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내 인물을 토대로, 지적 능력 발현과 관련된 한국의 시대적, 공간적 특성을 확인하고 교육적 함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뛰어난 업적을 이룬 위인이나 전문성을 획득한 개인의 생애를 조명하는 것이 왜 의미를 갖는가? 첫째,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생애’라는 보다 넓은 관점으로 이해함으로써 개인의 능력 계발에 기여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지적 잠재력 계발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략이나 발달 기제를 확인할 수 있다. 한 개인의 능력이 생애 전 과정과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계발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의 흐름은 최근 인적자원개발 연구와도 그 맥을 함께 한다. 둘째, 능력의 형성과 발달의 과정을 생생한 사례로 기술함으로써 교육실천가들에게 개인의 잠재력이 최대한 계발된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고, 교육현장의 훌륭한 예제 및 교육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토대로, 최근에는 위인의 생애를 통한 능력 계발 과정 탐색을 넘어 다

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문성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오현석 외(2007)는 과학 인재를 토대로 학창 시절부터 중년 과학자가 된 최근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아 계발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고(오현석, 최지영, 최윤미, 권귀현, 2007), 신중호 외(2007)는 국내 배우의 생애 사건을 토대로 연기 전문성의 발달 과정을 확인하였다(신중호, 이현주, 이태수 외, 2007).

이러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을 한 개인의 삶을 통해 바라보고, 그 맥락 안에서 능력 계발에 기여하는 다양한 기제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차치해 두더라도, 능력 계발의 다양한 유형을 아우르는 정도로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능력 계발의 유형은 문화나 시대를 넘어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낸 위인이나 특정 영역에 전문성을 획득한 사람부터 어린 나이에 성인 이상 수준의 능력을 보인 신동, 일찍이 특정 영역에서 조숙한 면모를 보이는 조숙아나 영재, 특정 영역을 빠르게 습득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각양하다. 그러므로 전 생애를 종단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특정한 능력의 계발을 촉진시키는 매개체나 전략, 기제들을 다양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의 맥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능력 계발의 유형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능력 계발의 새로운 유형을 확장하고자 그 동안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대상을 탐색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생애를 마감한 위인이나 전문성을 획득한 성

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학습자’를 주목하였다. 연구대상은 자기주도적으로 4개 국어를 획득한 학습자로, 4개 국어 구사라는 뛰어난 능력을 보이지만 교육 경험이나 신동들에게 발견되는 특별한 능력과 같은 외국어 능력 계발에 기여한 요인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사례이다. 4개 국어 구사라는 특이한 능력 외에는 너무도 평범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학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례의 삶을 통해 평범한 학생이 특별한 학습 기회 없이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였는지 확인하고, 잠재 능력 계발을 인도하는 다양한 전략과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는 기존에 규명되지 않았던 능력 계발 과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제로써,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다른 청소년의 능력 계발에 시사점을 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학습자는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능력을 자기주도적으로 계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능력의 습득은 현재 제도권 내의 교육의 외국어 교육의 변화 양상을 대변하는 대표적 특성으로, 외국어 능력이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의사소통 능력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국어 교육 방향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심봉섭, 2003; 정은혁, 안경민, 2007 등).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성은 다양한 학습자의 학습 장면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기업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여겨지고 있다(김미정, 2001; 이윤옥, 2007 등).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적으로 외국어 능력을 계발한 사례를 토대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한 학습자가 겪은 삶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학습 전략 및 기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외국어 능력 계발 과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가?

연구문제 2. 외국어 능력 계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전략과 기제는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만 15세 여중생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를 비롯한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를 구사하여 주목을 모은 인물이다. 연구참여자는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외국어를 단기간 빠르게 학습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학원 수강이나 해외 연수 등의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외국어 학습을 위한 가시적인 기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연구참여자는 강원도 K시 중학생으로, K시 중심가에서 버스로 1시간 이상 들어가야 하는 외딴 지역에 거주한다. 이 지역은 시내버스가 하루 3번 밖에 다니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문화시설이나 학습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나이가 많은 부모님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자매가 있고, 오직 연구참여자만이 외국어를 구

사한다. 특정 학원이나 해외 연수 경험이 전무하였고, 외국어 학습은 공교육을 통해 학습한 것과 몇 편의 TV 영화 만화프로그램을 시청한 것이 전부였다.

추가적으로 특징적인 것은 외국어 능력의 불균형성이다. 뛰어난 능력은 듣기와 말하기 능력에 국한된다. 영어의 경우, 통역 자원봉사를 할 수준이지만 읽기와 쓰기가 주를 이루는 학교 시험 성적에서는 중학생 평균에 거의 미치는 정도이다. CNN 뉴스 프로그램을 듣고 이해하지만, 이러한 수준의 읽기나 쓰기는 가능하지 않다. 게다가,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의 경우,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지만 읽기와 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러시아어의 경우, 러시아어로 쓴 글을 본 적도 없을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 이 사례를 연구참여자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어 영역을 어린 나이에 빠르게 학습한 사례로, 희소적 가치를 가지며 새로운 능력 계발 과정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4개국어를 구사하지만, 외국어 능력을 습득한 요인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사례로, 능력 계발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제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불균등한 외국어 능력은 능력을 점수로 지수화하는 검사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능력으로,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의 목적이 각 개인의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이 충분히 계발되도록 인도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사례는 단순한 시험 점수로 서열화되는 교육 환경에서 사장되고 있을지 모르는 잠재능력 계발 사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된다.

2. 질적 사례 연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규명하고자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사례의 경우, 양적인 데이터로는 복잡다단한 삶속에 전개되는 능력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계량화된 방법으로 삶의 일부만을 재단하기 보다는 오히려 삶의 전체 과정을 여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데이터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하나의 독특한 사례를 채택하여 그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자 하는 서술적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초점은 이론적 가설을 설명하고, 지지하거나, 그에 도전함으로써 이론화 작업에 기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례 자체가 보여주는 고유한 독특성과 능력 발현 과정의 복잡성을 풍성하게 드러내고, 그 속에 내포된 교육학적 의미를 포착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질적 사례 방법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자료 수집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례연구프로토콜을 활용하였다. 사례연구프로토콜이란 자료 수집에 앞서, 전체 연구의 계획을 설정하여 연구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연구 수행에 앞서 연구의 개요와 자료 수집 절차, 연구 문제와 연구보고서의 개요 등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연구의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Yin, 2003).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프로토콜에 연구의 개요, 자료 수집의 계획 및 절차, 자료 전사 및 코딩 계획, 자료 분석 계획,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사례연구프로토콜을 바탕으로, 면담자료, 신문기사, 텔레비전 방송자료, 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과정의 정수는 단연 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이다. 면담은 연구참여자 본인과 주변 인물의 면담으로 구성된다. 면담에서는 주로 시기별 생애사건, 학습자의 주요 학습 기회, 인지적 특성(예, 강점지능, 언어기억력, 언어적성 등), 정서적 특성(예, 흥미, 관심대상 등), 거주 공간 특성, 외국어 학습 경로 등이 다루어졌다. 면담은 총 7회의 직접 면담과 10회의 인터넷 면담으로 실시되었다. 인터넷 면담은 채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직접 면담에서 누락된 질문이나 직접 면담의 응답이 모호한 부분을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면담 시 녹음자료는 모두 전사되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었다. 이 밖에 사진 자료는 연구참여자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활용되었고, 연구참여자의 사례를 소개하고 능력을 검증한 신문기사 및 방송자료는 연구참여자이 가진 외국어 능력의 객관적 수준을 확인하는데 활용되었다.

수집한 자료는 다음의 절차를 토대로 분석되었다. 자료는 3단계의 코딩을 거쳤는데, 첫 번째 과정은 개방적 코딩으로 귀납적으로 코드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면담 전사 자료를 읽어가며, 한 줄 혹은 한 단어마다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 표시하고, 표시한 내용에 적절한 개념을 명명하는 코드를 부여했다. 대표적 코드는 ‘강점 지능’, ‘흥미 및 관심 대상’, ‘상징체계’, ‘거주공간’, ‘의미 있는 타자’, ‘학습 전략’ 등이다. 2단계에서는 주요 생애 사건 추출이라는 목적을 기반으로 선택적 코딩을 실시했다. 능력 계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생애 사건을 추출하였다. 생애 사건은 ‘시기별 생애 사건’, ‘거주 공간별 생애사건’, ‘소속 집단별 생애사건’, ‘기억에 남는 생애사건’ 등으로 코드화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1단계의 개방적 코딩과 2단계의 선택적 코딩에서 얻은 유의미한 코드를 바탕으로 코딩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자료와 질문이 도출되었다. 새롭게 도출된 질문을 위해 2007년 3, 4월에 각각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즉, 연구의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이 순환적인 과정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3단계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4단계의 흥미-입문-수직적 심화-수평적 심화라는 능력 계발 과정이 나타났고, 각 단계별 중요한 생애 사건이 정리되었다. 외국어 능력 계발과 관련된 인지 및 행동 전략이 도출되었고, 2가지 유형의 대비적 학습 과정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질적사례연구가 수집된 자료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왜곡되어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자의 관점을 검증하는 단계를 설정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는 과정으로 크게 전문가 집단의 검토(peer debriefing)와 연구참여자의 검토(member check)를 거쳤다. 전문가 집단의 검토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연구 계획 단계에

서 교육심리학 분야의 전문가 4명을 정기적으로 만나 연구 과정과 진행 사항, 사례연구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동료 집단과 코딩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방대한 자료에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코딩의 과정은 연구자의 관점과 해석에만 의존하므로 연구자가 부여한 코드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코딩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Young의 공식을 활용하여(이종규, 2006), 상호코더신뢰도계수와 내부코더신뢰도계수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계수 측정 결과, 내부코더신뢰도계수는 92%, 상호코더신뢰도계수는 7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 검토를 실시하였다.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연구참여자의 삶을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들과 결과물을 함께 검토하였다.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차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2차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행해졌다.

III. 결과 및 해석

1. 능력 계발 과정

본 연구에서는 능력 계발 과정을 확인하였다. 삶의 과정은 평범한 4세의 아이가 4개 국어를 구사하는 학습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4개 국어를 구사하기까지의 과정을 탐색하고자 중요한 생애 사

건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생애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평범했던 4세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조명하고자 한다.

능력 발현 과정은 주요 생애사건의 특성에 따라 흥미단계-입문단계-수직적 심화단계-수평적 심화단계의 4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각 시기는 생애 사건의 유사성, 능력 변화의 양상, 학습 경험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A의 4세부터 15세까지의 삶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국어 능력의 성취수준을 연령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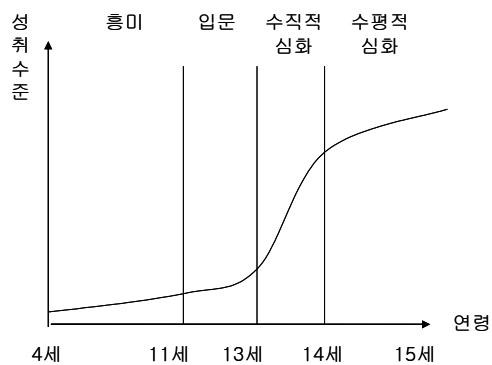


그림 1. 생애사건으로 보는 능력 계발 과정

흥미 단계: 파란 눈을 꿈꾸는 아이

본 단계는 연구참여자가 기억할 수 있는 4세부터 외국어 학습의 발단을 제공한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인 10세까지의 생애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중요 생애 사건을 추출한 결과, 이 시기 외국과 외국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의 행동과 언어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 학습을 위한 특별한 학습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텔레비전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의 모습은 이 시기 연구참여자의

삶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외국인을 좋아했어요. 예전에는 밤마다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눈 파랗게 해 달라구요. 그 눈이 너무 예뻐서요.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coding(2). 7: 185)

그러나 이것은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텔레비전에서 획득한 정보를 모방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연구참여자는 외국인이 되는 길을 외국인과 외향적으로 닮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하얀 얼굴과 파란 눈, 노란 머리를 가지기를 원했고, 외국인의 생활 모습을 흉내내고 싶어 했다. 이 시기의 주된 관심은 외국인의 외향과 겉으로 보이는 생활 방식이었다.

외국 사람을 좋아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순간부터 좋아했어요. 어린이집에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한 5살 정도에 그렸는데요. 사람을 그렸는데요. 정말 외국인 이예요. 거울보고 내 얼굴 그리기 했는데요. 외국인 그렸어요. 얼굴은 되게 하얗고, 다른 아이들은 살색 칠하는데, 나는 하얀색을 칠했어요. 코 이따만 하고, 눈 쌍꺼풀을 나 그 때 쌍꺼풀 만들었어요. 이렇게 눈 선을 그리고 하나 더 그렸어요(coding(2). 7: 206).

1단계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이 삶의 과정에서 특정 대상에 흥미와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흥미는 삶의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능력의

일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흥미는 이후의 특정 능력이 발현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의 경우, 이 시기에 보인 흥미는 외국어 학습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

입문단계: 잠재능력이 기회를 만나다

이 단계는 11세부터 12세까지의 생애 사건으로 구성된 시기로, 외국인과의 접촉하거나 외국어 학습 기회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외국어 습득에 전초가 된 케이블 TV의 프로그램 시청, 한 달에 1번씩 순회하는 원어민 교사를 만난 일, 학교 대표로 동문회 모임에서 영어로 자기소개한 사건은 연구참여자의 능력을 태동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른 아이들은 외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을 거의 피해서 했는데, 저는 일부러 말을 걸려고 했어요. 조그만 사건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말을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지 않은데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말을 걸었죠. 화장실 가고 싶다고. 엄청 빨리 갔다 온 거예요. 화장실 안 갔다 왔죠. 왜 그렇게 빨리 갔다 왔냐고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short’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앉으래요. (coding(2). 7: 200).

선생님이 저를 주시해서 봤나 봐요. 영어로 발표를 동문회 때 하기로 했어요. 그 때 원장선생님이 왔어요. 왔는데 처음

본 원장이 왔어요. 원장을 처음 봤어요. 원장이 자기소개를 쓰라고 했는데, 영어 못 쓰잖아요. 영어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깡그리 다 외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원장선생님이 써주고 한글로 밑에 다 헬로우 이렇게 써 주고(coding(2). 7: 199).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외국어 능력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 시기를 2단계로 분류하였다. 이 시기에 확연히 눈에 띄는 것은 3단계의 전초가 되는 여러 전략들을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이후 3단계에서 사용하는 결정적인 외국어 학습 방법들을 형성하는데 기반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흥미와 관심의 반영에 가까우며, 아직은 특정한 외국어 능력을 습득하였다고 이름 붙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수직적 심화단계: 능력 계발을 위한 옷을 입다

3단계의 수직적 심화단계는 현재의 연구참여자가 있기까지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시점으로, 이 시기 대표적인 생애 사건은 외국어 학습에 유용한 학습 전략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전략은 재미있게 텔레비전을 보면서 따라하기,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 이야기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그림자 학습, 서술적으로 이야기하며 대화 연결해나가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외국어 능력은 질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또한 외국어 능력은 초등학교 영어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게 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능력은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삶 내부를 들여다보면, 연구참여자에게 딱 맞는 외국어 학습 전략이 포착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외국어 중 특히, 영어 능력에 있어 커다란 도약이 일어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3세에 일어난 사건들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요한 단계로 분류하고, ‘수직적 심화 단계’로 명명하였다.

어느 날, ‘리즈 맥가이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게 재밌어서, 보다가 계속 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 제가 배운 영어가 있으니까, 그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아~그게 그거구나!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자막을 읽으면 드라마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막 안 읽고 화면만 보고 소리만 듣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요(coding(1). 1: 134).

그냥 하루에 긴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요.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거니까 드라마 한편이 길어야 30-35분이니까, 그걸 보고 그냥 까먹어요..... 근데 외국인이나 영어를 보면 막 영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얘기를 하면, 그 때 들었던 얘기가 막 생각이 나요. (coding(1). 1: 131). 보면서 거의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은, 자막이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표정으로 추측하다보면, 이는 문장인데도 질문은 이렇게 했는데, answer가 바뀌잖아요. 그럼 그럴 때 ‘아~ 저게 무슨 뜻이지?’ 궁금해서 표정을 보면 그게 좋은 뜻인지

나쁜 지 알 수 있고, 표정을 보고 ‘아~ 좋은 뜻이구나. 어쨌든 좋은 뜻이니까 알아두자,’ 그러면 또 다른데서 나오면 그때 자막을 보고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알게 되고.....(coding(1). 1: 30).

그냥 혼자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요. 아무 때나요. 시간 있으면요. 특히 영어를 많이 하는데요.....1인 10억도 해요.(coding(2). 7: 208).

나름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저 사람이 못 듣잖아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서술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해야 되요.(coding(2). 7: 211).

13세 시기는 능력 계발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와 같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어 능력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13세 시기에 연구참여자는 다양한 언어 학습 전략을 고안해냈고, 이러한 전략을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활용하면서 다양한 외국어를 습득하게 된다.

수평적 심화단계: 세상을 만나다

4단계 수평적 심화단계는 13세 11월 경 러시아인을 만난 시점을 시작으로, 14세 방송출연을 한 시점을 넘어 현재까지를 아우른다. 이 시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연구참여자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판단해줄 판단집단과 외국어 능력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새로운 외국인 집단이 생겼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연구참여자는 공중파 방송에 자신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

을 인식할 기회를 갖는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는 이전까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은 외국어 능력이 소위 말하는 '특별한 공부'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외국인과의 대화를 꿈꾸면서 만들어진 당연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

또 다른 특징은 연구참여자가 영어 이외에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어를 통해서 습득했던 다양한 학습 전략이 다른 외국어를 학습할 장면과 만나면서 외국어 능력이 수평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어는 농사일에 고용된 러시아인 외국인 노동자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습득되었고, 중국어와 일본어는 통역 자원봉사 및 국제 행사 인솔자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다.

스카이라이프인지 인터뷰를 했어요. 러시아도 외국분하고 같이 왔어요. 대화를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빠져야지.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니까 그 러시아 사람이(손을 세우며) 오케이. 따봉. 이러던데...(삼촌과의 면담 중에서, coding (6). 6: 27).

저희 시골이잖아요. 하우스에 일하러 온 러시아 노동자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살레 살레 했어요. 어느 날 가더니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맨 처음에 영어로요 근데 노동자들이 못 알아듣더라고

요 그 때까지만 해도 모든 외국인, 그니까 눈 파랗고 눈 움푹 파이고 코 높고 키 크면 다 영어 쓰는 줄만 알았어요. 영어로 가서 물어봤죠. '커피를 원하냐'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뭐라고 해요. 그런데 딱 유일하게 들리는 말이 커피랑 비슷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 하고 그 다음 날 가서 혼자 막 연기를 했죠. 그 다음날 점심 먹으러 올라오잖아요.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따라하다 보니까 말이 어지간히 되겠구나 하고 했죠.(coding(1). 1: 65).

피겨스케이팅 거기, Press 센터에서 일했을 때요. 일본기자랑 중국기자랑. 이때는 영어와 러시아어 밖에 못했는데요. 이때 영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남자 분들이 일어로 장난을 치면은, 그걸 영어로 막 물어보면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 표정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표정을 보고 거의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로 그냥 혼자 얘기하고 막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사람들 했던 얘기들을 막 생각하면서 혼자 막 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조금만 알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조그만 부분을 알면 그 다음 부분을 이어나갈 수 있는 말을 앞부분에서 찾아서 또 뒤에 덧붙이고 하면서.....(coding (2). 7: 180~183).

요컨대, 4단계는 의미 있는 타자의 영향력

이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한 개인의 능력은 개인 내부에서 특정 화학 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결과물이 아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능력 계발을 위해서는 학습 기회도 있어야 하지만, 유의미한 타인의 지지나 평가, 도움이 필요하다. 4단계는 능력 계발에 있어 타인과의 적절한 만남이 한 개인의 능력을 일깨우고 확장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 능력 계발 과정에서 발견한 전략 및 특징

능력 계발 전략

4단계의 능력 계발 과정의 생애 사건을 반복적으로 검토한 결과, 외국어능력 계발에 유의미한 5가지 전략이 포착되었다. 각각은 고유한 의사소통 전략, 외국인의 삶에 몰입하기, 반복적 모방, 적극적 참여, 그림자 학습이다. 표 2는 이것을 크게 언어 학습에 도움을 준 인지전략과 행동전략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표 2. 능력 계발에 기여한 인지/행동 전략

인지전략	행동전략
· 고유한 의사소통전략 : 서사/ 묘사 · 그림자 학습	· 반복적 모방과 삶에 몰입하기 · 적극적 참여

인지전략 ①: 고유한 의사소통 전략. 고유한 의사소통 전략은 삶의 전반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단순히 외국어 습득에만 국한된 특성은 아니지만, 외국어학습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였다. 고유한 의사소통 전략의 대표적인 것은 ‘서사적 말하기’ 혹은 ‘묘사적 말하기’로,

다양한 면담 자료에서 발견된다.

나름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저 사람이이해를 못 하잖아요. 내가 이 단어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발음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서술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해야 되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첫 번째로 바디 랭귀지로 보여줘요. 바디 랭귀지도 안 통한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용도에 쓰인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리고는 ‘아 그건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 그건 그거였구나!’ 그러지요. 예를 들어, apple이 있잖아요. 그러면 apple을 이야기해요. 스펠링을 모를 경우, 이거 원숭이 엉덩이 노래에도 나왔고, 그리고 빨강다, 백설 공주가 가지고 있었다. 과일이다. 달다. 꿀 들어있는 것도 있다. 그래도 모르면 흉내를 내는 거예요. I’m a snow princess. 아~(사과 먹고 쓰러지는 시늉). 그러면 아~ 그래요(coding(2). 7: 211).

이러한 전략은 외국어 습득에 장점으로 작용했다. 외국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된다. 외국인과의 대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알고 있는 모든 표현을 동원하여 외국인이 알 수 있도록 서술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참여자를 더욱 능동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였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들었다. 즉, 외국인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만든 전략이 된 것이다.

인지전략 ②: 그림자 학습(shadow learning). 그림자 학습은 외국어 능력을 계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학습 전략이다. 그림자 학습(shadow learning)은 연구참여자가 다양한 외국어를 대화 상대가 있는 것처럼 혼자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표현한 주제어로, 연구참여자가 심심할 때면 상황을 설정해 두고, 1인 다(多)역의 역할을 통해 외국어를 연습한 모습을 상징화한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에 외국어를 혼자서 말하고 답하는 모습이 복싱의 웨도우 박싱이라는 연습 방법과 유사하여 단어를 차용한 것이다.

일본어 중국어는 그냥 그 때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을 막 생각하면서 혼자 막 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coding(2) 7: 182).

연구자: 외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던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그냥 혼자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요. 우선은 동수 같은 존재예요. 영어는 동수 예요. 안 보이는 친구. 투명 인간이요. 그냥 혼자 이야기하더라도 동수가 대답하는 것처럼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 항상 동수라고 생각해 왔어요(coding(4), 11: 27).

그림자 학습은 3단계인 수직적 심화 단계부터 나타난 특성으로, 연구참여자가 심심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고안하다 얻어낸 전략이다. 단순히 여가 시간을 보내려던 이 전략은 결국 외국어 사용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외국어 능력 변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은 언어의 사용을 증가시킴으로써, 해당 표현을 오래 기억하게 하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행동전략 ①: 반복적 모방과 삶에 몰입하기. 반복적 모방(Repeated imitation)은 연구참여자의 삶을 집약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모방 행동은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출현하는 특성이다. 특징적인 것은 모방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모방의 대상이 흥미와 관심 대상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외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와 관련된 영역에서만 모방행동을 보여주었다. 외국인의 행동, 외향, 외국어만을 반복적으로 모방하였다. 이러한 모방 전략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 ‘외국인의 삶에 몰입하기(life immersion)’으로 표현되는, 외국인의 외향과 생활양식에 대한 모방이다. 외국인의 삶 속에 몰입되어 외국인이 되고 싶다는 상상을 하며, 다양한 생애 사건으로 표출된다.

외국인들 신발 방 안에서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신발 신고 막 들어가서 엄마한테 막 맞고 그랬어요(coding(2) 7: 40).

꼭 외국 사람은 키가 무조건 180이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책상 위로 올라가서요. 보자기로 밑에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언니 ‘나 외국사람 됐다’ 그러면 언니가 ‘저런 너 왜 그래? 그랬죠(coding(2) 7: 145).

두 번째는 외국어 습득의 전략으로 등장한

다. 모방행동은 TV에서 들은 외국어를 그대로 따라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외국어 한 마디를 단순히 따라했던 모방이 말문을 트이고, 자유로운 외국어 구사로 이어지게 되었다.

엄마한테 그 짧은 영어로 ‘마덜~ 아임 배고~파~용’ ‘마덜~ 담배냄새 시러요’ 대개 외국인들이 말하는 거 따라하고 그랬어요(coding(2) 7: 39).

어느 날 TV를 보면서요. 그것을 따라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무작정 이야기를 했는데……. 말문이 트인다고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유창하게 한 것은 아니구요(coding(3) 10: 76).

요약하자면,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외국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과 언어를 모방하고자 했던 노력은 연구참여자가 지금의 언어 능력을 갖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행동전략 ②: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active participation) 전략은 개인의 성격 특성일 수 있지만, 그것이 특정 영역에서만 일어났다면 주목할 만하다. 연구참여자는 특히 외국인과의 만남 및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적극성은 어린 시절에는 원어민 영어교사와의 대화에 참여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

원어민 선생님이 처음 왔을 때, 다른 아이들은 외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을 거의 피해서 했는데. 저는 일부러 말을

걸려고 했어요. 조그만 사건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말을 하려고 했어요(coding(2) 7: 117 9).

생애 사건 중에서 연구참여자의 적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외국인을 만날 기회를 스스로 탐색한 사건이다. 통역 자원봉사를 스스로 알아보고 참여하게 되면서, 많은 외국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은 영어 이외의 일본어와 중국어와 같은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기회를 주었다.

통역 자원봉사로는 단오 인솔자 2번다. 피겨 스케이팅할 때 프레스 센터 1번 - 일본, 중국사람 만났던 거구요, 단오 2번 할 때는 에스파냐하고 베트남했구요. 그리고 관광안내소 자원봉사(coding(2) 7: 204). 관광안내소 일은 시청에 미리 미리 전화해서 통역하고 싶은데 자리 있냐? 자리 있으면 전화해 달라고 그랬어요(coding(5) 12: 32).

외국어 학습 과정

연구참여자의 또 하나의 대표적 특성은 외국어 학습을 하는데 있다고 여겨지는 가시적인 학습 기회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공교육의 영어 교과를 통해 영어 학습을 하였지만, 연구참여자의 언어 능력에 있어 공교육의 영향력은 미약해 보인다. 오히려 다양한 전략을 통해 외국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연구참여자가 보이는 외국어 능력의 불균등성과도 연결된다. 연구참여자의 영어 읽기 및 쓰기 능력은 대부

분 공교육 수업 시간을 통해 학습한 것이 전부이다. 연구참여자는 듣기와 말하기 능력은 우수하나 쓰거나 읽기의 능력은 평범한 수준이다. 스스로 배운 듣기 및 말하기 능력과 공교육에서 배운 읽기 및 쓰기의 능력 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은 연구참여자의 두 가지 학습 과정의 차이를 보여주는 생애 사건들이다. 연구참여자의 이야기 속에서 두 학습 과정이 가져온 결과의 차이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그 선생님은 스펠링 외우기 위한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스펠링 외우는 게임만 했어요. 근데 그것은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 거기 때문에(coding(2). 7: 195).

학교를 갔는데요. 영어를 처음 3학년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런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계속 쓰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항의한 적 있어요. ‘선생님, 말부터 해야죠. 왜 쓰는 것만 해요.’

거기가 촌이니까요. 쓰기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예요. 다른 학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그랬어요. 그래서 재미없어서 그 때는 영어 안 했어요. 그래서 못 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ABC 몰랐어요. 4학년 때도 완벽하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ABC 알기는 알았는데요. 쓰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5학년 때 까지. (coding(2). 7: 191)

저는 학습비법을 이야기하라면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티비보고, 다 보면 그냥 말고, 재미있으면 보고 재미없으면 끄고, 끄고 나면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외국인을 만나면 그냥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냥 혼자 있을 때 심심하니까 혼자 떠들고 그런 거 밖에 없어요. 공부를 뭘 한 것이 아니라서 사실 비법 같은 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비법을 숨기고 안 가르쳐주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진짜 뭐가 있어야 말이죠(coding(2). 7: 453)

연구참여자의 학습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두 가지 학습 과정이 분명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수동적 학습으로 공교육에서 배운 영어 학습이고, 두 번째는 능동적 학습으로 연구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전략으로 외국어를 학습하게 된 과정이다. 수동적 학습은 대개 영어 읽기와 쓰기에 초점을 두며, 교사에 의해 진행되는 수업에 연구참여자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참여자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고, 수업 목표 및 교육 과정에 근간을 둔 교사 주도형 학습 방법이 활용된다.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교사가 제시한 수업 과제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외국인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하는 능동적 학습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삶의 다양한 장면 속에서 외국인을 만날 궁리를 하며, 외국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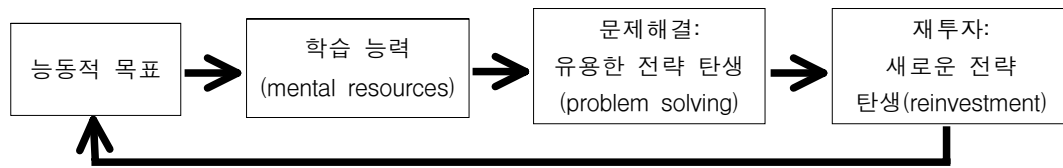


그림 2. 능동적 학습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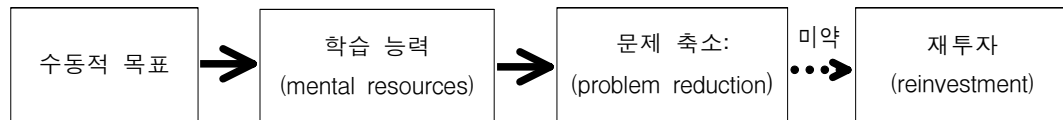


그림 3. 수동적 학습 과정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안한다. 즉, 스스로 학습 과정을 이끌어가며, 자신의 다양한 능력을 보다 진보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는데 활용한다. 외국인과의 대화라는 과제에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면서 연구참여자는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얻게 된다. 그림 2와 3은 이러한 학습 과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연구참여자가 능동적 목표를 가지고 외국어 구사 능력을 학습하는 경우,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학습 능력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유용한 학습 전략을 고안해 낸다. 그 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재투자하여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만들어내며 이 과정은 순환적으로 계속되며 외국어 습득에 기여한다. 반면에, 수동적 목표로 시작되는 공교육 학습 과정은 학습 능력이 수업 시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에

게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학습 능력이 재투자되는 가능성은 미약하기 때문에 순환적으로 지속되지 못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 학습자가 살아온 삶을 토대로 능력이 계발되는 과정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학습 전략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13세를 전후로 하여 놀라운 외국어 구사 능력을 획득한 연구참여자의 삶이 다양한 생애 사건의 누적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보여 준다. 연구참여자는 4단계의 능력 계발 과정을 거친다. 흥미 단계-입문 단계-수직적 심화 단계-수평적 심화단계를 거치며 자신의 외국어 능력을 계발해나간다. 어린 시절 외국에 대해 보였던 흥미가 외국어라는 영역과 조우하고, 이러한 만남이 다양한 전략 및 유의미한 타인과 만나면서 능력의 계발은 이루어진

다. 이것은 능력이 계발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이 속한 다양한 맥락과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삶의 사건을 고려함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의 연구 대상과는 성격이 다른 연구참여자에게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의 삶과 살아온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한 개인의 능력을 개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유용한 방법임을 제시한다.

한편, 연구참여자의 다양한 생애 사건에서 나타난 능력 계발에 기여한 전략들과 학습 과정은 능력 계발을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능력 계발에 기여한 5가지의 전략인 고유한 의사소통 전략, 그림자 학습, 반복적 모방 및 삶에 몰입하기, 적극적 참여 전략은 연구참여자 능력의 질적 변화에 기여한 대표적 것들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전략들은 우수언어학습자의 언어학습 전략과 닮아 있다. 제 2 언어 학습에서 성공적인 성취를 보인 우수언어학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의 학습을 위한 자신의 방법을 탐색하고, 교실 내외에서 언어를 사용하며 연습을 위한 기회를 만든다. 또한 상황적인 맥락을 파악하며 이해하고, 능력 이상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공식화된 일상이나 청크를 배우며,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 있다는 것이다 (Rubin, 1975; Stern, 1975; Rubin & Thompson, 1982, 최희재, 2006, 재인용).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연구참여자의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수언어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나 특성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관한 점이다. 즉, 연구참여자는 능력 계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을 얻었고, 그것은 소위 언어 학습에 있어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우수언어학습자의 특성을 얻게 된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특성을 얻게 되었는지에 관한 단서는 수동적 학습과 능동적 학습을 비교한 연구 결과와 4단계의 능력 계발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참여자의 삶의 과정을 살펴보면, 외국인 및 외국어 등에 대해 지속적인 흥미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어에 흥미가 있다는 사실이 4개 국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특정 상징체계에 대한 흥미와 태도는 능력의 일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Gardner(1983)는 인간의 능력을 설명하는 다중지능이론을 제안하면서, 각 지능의 능력은 이 지능을 처리하는 상징체계에 대한 흥미와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임을 언급한 바 있다. 즉, 연구참여자가 보인 흥미와 관심은 능력의 단초가 되며, 이후의 능력 계발 과정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흥미와 관심의 영향력은 수동적 학습과 능동적 학습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흥미와 관심의 대상인 의사소통을 위한 외국어 습득은 연구참여자를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적절하고 유용한 전략을 고안하도록 이끌었으며, 자신의 학습 능력을 지속적으로 학습 과정에 투자하도록 인도했다. 반면에, 읽기와 쓰기 중심의 수동적 학습에서는 교사가 제시하는 과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여 문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추후에 지속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러한 과정은 전문성이 개발되는 과정과도 유사하다. 흔히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재투자(reinvestment)를 하는 것은 전문성 신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요인이다(Bereiter & Scardamalia, 1993).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사례는 능력 계발을 증진시키는 교육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유용한 실례가 될 수 있다. 능력 계발 과정이 보여준 것은 특별한 전략이나 교육기관이 무조건적인 능사가 아님을 보여준다. 오히려, 교육적 처치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인의 흥미 영역에 대한 발견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여기에 개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자신만의 방법과 시간을 통해 능력 계발에 유용한 학습 전략을 만들어냈다.

둘째, 흥미-입문-수직적 심화-수평적 심화 단계는 능력 계발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예를 제시하며, 각 시기별로 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 연구참여자의 능력 계발 과정을 살펴보면, 개인이 가진 흥미를 출발점으로 해서 흥미와 관련된 적절한 영역과 조우하고,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계발하여 외국어를 습득하고, 4단계에서는 타인의 도움을 통해 능력을 인식하고 확장하게 된다. 본 사례는 그 동안의 교육이 한 개인의 능력 계발을 삶의 다양한 순간의 누적이며, 각 시점에서 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았는지를 반문한다. 능력 계발이 여러 요인들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각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계발하는데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한 명의 연구참여자를 사례로 진행된 연구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이 흔히 발견할 수 없는 사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구의 결과를 보다 일반적인 학습자 모두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다양한 연구참여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능력 계발의 과정 및 그에 기여하는 전략 및 기제 분석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능력 계발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능력 계발의 유형을 발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능력 계발에 관한 생생한 예시를 얻고 능력 계발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적 아이디어가 발견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미정 (2001). HRD전략으로서의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가능한가? 학술대회논문집 2001 (1), 25-51.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문음사.
- 류숙희 (2004). 백범 김구의 잠재능력 계발 과정 연구: 다중지능이론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용린 (2003). 기업인 정문술의 지적 능력의 계발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도덕심리연구실.
- 문용린, 오현석, 한허정 (2006). 인적자원개발 궤적의 개념을 활용한 개인의 성장과정 연구. 한국교육 33(3), 193-215.
- 문용린, 이광형, 안태진 (2003). 그러나 그의 삶은 떠들썩했다: 정문술의 다중지능 분석보고

- 서. 서울대학교 도덕심리 연구실.
- 문용린, 홍성훈, 류숙희 (2004). 백범 김구의 형성과정 탐색: 한 위인의 다중지능 분석 보고서. 서울: 산해.
- 신중호, 이현주, 이태수, 임선영, 윤은희, 황혜영 (2007). 연기전문성 발달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개인의 능력 계발 영향요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1(2), 401-421.
- 심봉섭 (2003). 외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능력 신장 방안. *프랑스어문교육* 16, 29-53.
- 안태진 (2003). 다중지능이론의 관점에서 본 전혜린의 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채운 (2007). 외국어쾌속학습능력의 발현 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석, 최지영, 최윤미, 권귀현 (2007). 과학인재의 성장 및 전문성 발달 과정에서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7(9), 907-918.
- 이윤옥 (2007). 자기주도학습 개념 분석 및 측정도구 개선방향에 관한 제언. *아동교육* 16(1), 19-30.
- 이종규 (2006). 질적 연구 방법론. *교육과학사*.
- 정은혁, 안경민 (2007). 외국어 사회화용적 능력 습득 연구. *영어학연구* 23, 133-153.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최희재 (2006). 자기주도적 프랑스어 학습에서 언어 학습전략 활용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eiter, C., & Scardamalia, M. (1993). Chapter Four: Expertise as process. In *Surpassing ourselves: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implications of expertise*(pp.77-120). Chicago: Open Court.
- Csikszentmihalyi, M. (1996).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H. (1993). *Multiple intelligences: the theory in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H. (1997). *extraordinary Minds*. 문용린 역 (1999). 비범성의 발견. 해냄.
- Gardner, H., Laskin, E. (1995). *Leading minds: an anatomy of leadership*. New York: Basic Books.
- Rubin, J. (1975). What the “good language learner” can teach us. *TESOL Quarterly*, 9(1), 41-51.
- Rubin, J., & Thompson, I. (1982). *How to be a successful language learner*. Boston: The Heinle & Heinle Pubs.
- Stern, H. (1975). What can we learn from the good language learner?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34), 304-318.
- Yin, R. K.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3rd). Sage Publications.

1 차원고접수 : 2009. 04. 10.

수정원고접수 : 2009. 05. 20.

최종게재결정 : 2009. 06. 09.

A Case study on an analysis of the strategies and patterns with in the Development Process

Uhm, Chae-Yun

Moon, Yong-Lin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ategies and patterns which exist within the development process. The participant in this study is a gifted polyglot who was able to speak four languages by the end of elementary school. Data were collected from multiple sources, including a series of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 and her family, newspaper articles, broadcasting data and childhood photographs according to the case study protocol. Data were analyzed using open, axial, and selective coding as proposed by Grounded theory, following a qualitative approach. In particular, critical life events are selected in order to explicate how they have influenced and shaped the development proces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transcripts revealed four phases of the development process: the interest period, primer period, progress period and transference period. Second, the study identifies two cognitive strategies and three action strategies; 1) unique communication strategy, 2) shadow learning, 3) life immersion, 4) repeated imitation, 5) active participation. These strategies collectively exerted a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Lastly, the findings indicated that each of the two learning processes, the active and the passive learning processes, have a different role in language acquisition. This study confirmed the notion that critical life events are useful in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process and suggested several essential educational methodologies to improve student achievement and development through reflection upon the development path.

Key words : development process, qualitative case study, cognitive strategy, behavioral strategy, learning pattern